

도래할 ‘기계사회’와 사회변혁의 매개 :

기계 · 괴물 · 여성 *

: 산업합리화운동과 근대극장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김우진 **

차례

1. 근대 기계문명의 발달과 노동 이데올로기
2. 가공된 기계와 유기체의 혼종 : 만들어진 괴물
3. 유물론적 사고의 추동(推動)과 은폐된 성차서열의 내면화
 - 3.1. 국민관리제도와 남근적(男根的) 권력으로서의 과학
 - 3.2. 여체(女體)의 재현과 근대극장의 상상력
4. 보편표상의 교체를 향한 열망의 기호들

〈국문초록〉

근대 인텔리들에게 있어 산업합리화운동은 곧 도래할 ‘기계사회’의 전조(前兆)이자, 거스를 수 없는 사회변혁으로의 진입을 맞이해야한다는 선고(宣告)와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과학 소재의 극들은 변화될 사회에 대한 계몽과 계급적 투쟁이라는 편협한 해석을 넘어 기계사회에 강제 편승하게 된 근대 조선인의 측면에서 다시 고찰되어야 한다. 이 시기 이광수와 김기진, 김우진 등은 평론과 감상문 등의 기고를 통해

* 본 논문은 고려대 대학원 국문과 내(內) 희곡분과 연구자들이 모여 진행한 “극장과 과학”(假題)연구의 일환(一環)으로 쓰여진 줄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언해주신 희곡분과 선·후배 선생님들과 첨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우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한국여성문학학회 투고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조언 역시 요긴했는데, 근대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과 함께 기계문명을 바라보는 냉철한 인텔리들의 시선, 그 관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정 방향을 잡는 데 특히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외래교수

기계문명에 대한 합리적인 내러티브를 매체에 제시하지만, 낯설기만 한 기계사회의 소식들로 야기된 불안과 공포는 수사학적 글쓰기라는 방식을 통해 부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극으로 발표된 일련의 서사들은 당대 기계문명의 도래가 남근 중심적 권력의 형태로 형상화되고, 여성젠더를 남성성의 요구에 맞게 코드화 하여 다시금 재타자화 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는 전근대적 남성권력이라는 위치를 기계사회와 과학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재 점유 하려던 남성젠더 무의식의 반영이자 당대 보편표상의 교체를 향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과학담론은 식민지 남성젠더에게 요구되는 형태로 순응하는 여성젠더를 만들어내는 왜곡과 속류화의 이데올로기로도 기능했던 것이다. 근대 과학소재 희곡의 풍부한 젠더적 함축은 새로이 고구(考究)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기계사회, 산업합리화운동, 괴물, 남근적 권력, 여체

1. 근대 기계문명의 발달과 노동 이데올로기

김태수의 희곡 『노동자』(朝鮮之光_1927作)¹⁾와 박영희의 번안(飜案) 희곡 『인조노동자』(開關_1925作)²⁾에는 혁명을 일으키는 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이면서도 기계와 같은 부품의 취급을 받았기에 봉기했고, 또 실제 기계임에도 자신들을 지배한 인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위협의 행위를 통해 인간과 기계 간의 역학구도를 형성하거나 존재의 경계를 모호³⁾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김남천의 희곡 『조정안』(KAPF

1) 서연호, 『김태수_노동자』, 『한국희곡전집Ⅱ』, 태학사, 1996, 126~135쪽.

2) 박영희, 『인조노동자』, 『개벽』, 제56호~제59호, 1925.02~1925.05. 62~63쪽.

3) 인간과 기계가 유사하다는 논쟁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와 라메트리(LaMettrie, 1709-1751)에게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라메트리는 인간의 모든 사상(事象)을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 하였으며, 데카르트와 달리 신의 인간창조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8세기 계몽주의적 합리성

作家七人集_1932作)⁴⁾ 역시 과업조정안을 결정짓는 식민지 토착 부르주아의 회의 자리에서 당대 자본을 선점한 지배계급이 노동자를 어떻게 인지하고, 통제(統制)하였으며 또 배제(排除)하려 하는지 고스란히 노출된다. 상기 세 작품의 노동자들은 인간이거나 인간이 아니거나(로봇), 폭도 혹은 통제 불가능한 그 어떤 괴물과도 같은 하위집단으로 통칭되거나 명명된다. 이들 노동자를 잘 다루면 생산성이 증대되고, 공장운영이 원활해져 잉여자본의 축적이 가능하지만, 잘 다루지 못할 경우 이들은 지배계급집단을 소통 없이 위협하는 그래서 지배계급이 도망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괴물이자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물론 이상 세 편의 희곡을 쓰거나 옮긴이들은 모두 KAPF계열의 작가들이다. 그래서 박영희의 「인조노동자」나 김남천의 「조정안」의 경우 앞선 성과들을 통해 원작으로부터의 수용과정에서 대부분 작가의 프로문학사상의 영향 및 볼셰비즘(Bolshevism)으로의 원작 해석의 프레임⁵⁾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창작과정에서 평양 고무공장 제네스트와의 관련 해석 및 과학기술의 계급화⁶⁾ 등 다분히 작가의 사상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중심으로 해석

과 더불어 기계론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조영란,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론>에 나타난 심신이론과 18세기 생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13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1991, 139~154쪽.

- 4) 서연호, 「김남천_조정안」, 『한국희곡전집Ⅱ』, 태학사, 1996, 269~278쪽.
- 5) 이민영, 「박영희의 번역희곡과 「네이션=스테이트」의 기획」, 『어문학』 107권 107호, 한국어문학회, 2010, 323~350쪽.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44권, 현대문학연구학회, 2011, 117~146쪽.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49쪽. 송명진, 「근대 과학소설의 과학 개념 연구」, 『어문연구』 제42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여름, 2014, 185~207쪽. 황정현, 「1920년대 「R.U.R.」의 수용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513~539쪽. 김상모, 「신이상주의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모색」, 『한국언어문학』 제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237~263쪽.
- 6) 김성수, 「카프文學部編 <카프作家七人集>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1권, 민족문학사연구소, 1991, 301~308쪽. 한편으로 「노동자」의 작가 김태수에 관한 신문기사나 잡지기록,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전무 한 상태이며, 해당 작품이 실린 지면의 해설 지문(서연호, 같은 책, 397쪽)을 통해 그 역시 프로문학의 일환(一環)으로 해당 작품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31년 1월 『조선일보』에 연재된 유진오의 단편 「여직공」과 「신계단」 1933년 3월호에 실린 이복명의 「여공」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사

되어왔다. 이는 당대 “기계와 과학담론의 문학적 형상화는 곧 사회주의적 계급구획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는 등식성립의 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학을 다루는 프로파간다 문학이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로 자본가와 과학자는 늘 악인이고, 비자본가와 실험자는 약자이자 선한자라는 흑백 구도처럼 말이다.

번안 및 수용의 측면에서 좀 더 사유를 넓혀 이 시기 담론들을 살펴본다면, 재일유학생들에 의해 발행되었던 태극학보(太極學報)에 쥘 베른의 『해저2만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1870)』를 번안한 『해저여행기담』(1907)이 실렸을 때부터 금서조치를 당한 이해조의 『철세계』(1908), 발신문학의 논란⁷⁾이 있었던 김교제의 『비행선』(1912), 웰즈의 『타임머신(The Time Machine)』(1895)을 번역한 김백악의 『80만 년 후의 사회』(1920), 그리고 신일용이 번역했다고 알려진 『월세계 여행』(1924), 카렐 차펙(Karel Capek)의 『R.U.R』(1921)⁸⁾을 번역한 『인조노동자』(1925)와 기계의 노예에서 성적 착종의 대상이 되었던 여직공들을 다룬 박화성의 『추석전야』(1925)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도¹⁰⁾가 있었다.

회주의적인 남성 노동계급에 의해 도움을 받고 구조된 후 혁명의 보조자로 묘사되는 서사는 동시대 프로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7) 김교제의 『비행선』의 원작은 현재까지 그 원천에 해당하는 발신 작품의 유사함으로 인해 쥘 베른의 『기구를 타고 5주간(Cinq semaines en ballon)』과 프레드릭 데이(Frederick Van Rensselaer Dey)가 『New Nick Carter Weekly』라는 미국의 다임 노블 잡지에 연재한 에피소드라는 의견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97~225쪽.
- 8) 『R.U.R』은 오랫동안 잊힌 채였다가 1970년에 국립극단에 의해 ‘인조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기록이 있다. 당시 최불암, 손숙 등의 배우가 무대에 올랐다. 또한 원작을 각색하여 『호모 로보타쿠스』(임부희 각색, 장한새 연출)라는 제목으로 2017년 공연이 되기도 하였다. 김태희 외, 『기술과 인간』, 『연극비평집단 시선 평론집』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Time Catcher, 2017, 42~44쪽.
- 9) 박화성, 『추석전야』, 『조선문단』, 방인근발행, 1925.01, 185쪽.
- 10) 인간과 기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시도는 서구 유럽에서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동인형의 발명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 발

이러한 시도들은 당대 인텔리들에게 있어 과학(기술·기계)이라는 소재의 다양한 글들이 곧 도래할 '기계사회'의 전조(前兆)이자, 거스를 수 없는 사회변혁으로의 진입을 맞이해야 한다는 선고(宣告)와 다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상기 서두에 언급한 KAPF작가의 세 편의 희곡과 관련한 해석 역시 과학기술로 변화될 사회에 대한 계몽과 프로파간다로의 편협한 해석¹¹⁾을 넘어, 기계사회에 강제로 편승하게 된 인텔리 혹은 서발턴(Subaltern)의 측면에서 다시 고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대 과학소재의 희곡을 바라보는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시기 과학소재의 일련의 극과 글들이 허구의 변증법적 결합 속에서 탄생한 공상(계급)문학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는 인간 자아를 중심으로 현재에 대한 (과학 패러다임이라는) 특정한 관점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 사이 기계와 노동자를 다룬 소재의 일련의 극과 이를 해석하는 문학인들의 시선을 주목한다. 우선적으로 당대 과학담론의 글들을 발표한 인텔리들의 시선을 살핀다. 이광수에

명된 자동인형은 살아있는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계인간으로 인식되었다.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인간을 닮은 자동인형의 등장은 더 나아가 문학적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 작품에 재현된 기계인간 모티브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적 낙관론으로 제시되기보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공포, 속임수, 정신 착란, 죽음 등으로 표출되었다. 천현순, 『인간과 기계』, 『독일문학』 122권 0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12, 223~247쪽.

- 11) 마르크스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부조리를 들춰냈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 자체가 세계의 비밀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방법론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과학을 단순히 기술의 발달로만 보지 않고, 세계를 구성하는 방법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의미를 확장할 때 사회주의는 큰 의미에서의 과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과학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이 아닌, 세계를 해석하고 기존의 세계가 가지고 있던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의미로 작용했다. 칼 마르크스,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발전』,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김계기 역, 거름, 1988, 291~292쪽. 이러한 맥락에서 KAPF작가들의 기계(로봇)담론이 내재한 일련의 글들은 당시의 무권계급(無權階級)과 유권계급(有權階級) 간의 간극에서 나타난 부조리를 지적하고 이를 혁파(革罷)하기 위한 혁명과 계몽의 수단으로 도구화되어 왔다.

서부터 김기진, 김우진, 그리고 심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번안과 수용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당대 과학 소재의 작품과 영상에 대한 논설과 평론 위주의 글을 남긴다. 이들이 작품의 분석과 더불어 당대 기계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허구의 세계가 아닌 곧 도래할 현재이며 부분적으로나마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사하게 드러낸다. 이는 이들이 극장에서 관람한 작품의 감상을 넘어 작품 외적인 사회현상 가운데 기계사회로의 도래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요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극중 봉기나 몰락이 되는 대상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두려움의 반영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박영희의 번안(翻譯)희곡 『인조노동자』(開關_1925作)와 김태수의 『노동자』(朝鮮之光_1927作)와 김기림의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朝鮮日報_1931作), 그리고 김남천의 『조정안』(KAPF作家七人集_1932作)을 살핀다. 이들 네 작품은 극중 인물(지식인, 노동자, 로봇, 서민)들이 당대 기계사회를 바라보고 변화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는 극이라는 상연(上演)과정 통해 기계사회로의 도래가 관객에게 무엇을 선전하고자 하는지 살피는 데 중요한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는 극중 노동자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변화해가는 측면에서부터 이러한 극들을 바라보는 외부자적 인텔리들의 시선, 그리고 이들이 당대 기계사회로의 도래를 바라보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들이 당대 여러 매체를 통해 형성한 “패러다임”¹²⁾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는 기계의 매개이미지와 표상, 당대 계급문제와 같은 것들이 정치문제가 아닌 “산업합리화운동”¹³⁾과 같은 사회현상을 통해 해

12)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이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토머스 S. 쿤, 『제5장. 패러다임의 우선성』, 『과학혁명의 구조』, 홍성욱 역, 까치글방, 2013, 198~218쪽.

13) 산업합리화운동을 거친 독일의 자본주의는 1925년을 전후하여 안정기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성공사례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서춘, 『산업합리화』, 『별건곤』, 제28호, 1930.04. ; 홍양명 외, 『우리들은 아미리가 문명을 끄으러 올라 로서아 문명을 끄으러 올라?』, 『三千里』, 4~7호, 1932.06. 참조.

석될 수 있으리라 가정한다. 본 시도는 미약하게나마 당대 과학담론이 KAPF론적 계급의 문제를 넘어 식민지 근대를 규정지을 수 있는 확장인식의 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가공된 기계와 유기체의 혼종 : 만들어진 괴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탈로스(Talos)는 인류 최초의 청동합금(靑銅合金)로봇이다. 인간을 닮은 기계를 고대 때부터 그려냈다는 사실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오랜 욕망¹⁴⁾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는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목도(目睹)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기계라면, 그것은 어떤 이들에겐 욕망의 대상이라기보다 신(종교)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경외(敬畏)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농경사회에서 이제 막 공업사회로 강제된 식민지 근대 조선의 경우가 그랬다. 그리고 이런 기계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의 등장은 이 시기 문학인들에게 꽤나 심각한 변화의 조짐이자 사회 문제로 각인되었다.

이광수는 1923년 4월 1일 『동명(東明)』이란 잡지에 『인조인(人造人)』이란 제목으로 카렐 차פק의 희곡 『R.U.R』을 논설 형태로 소개한다.

(...) 벌써 오늘날 이르러 우리들은 인류(人類)라 하는 동물(動物)이 맨들어 노흔 물질문명(物質文明)의 처치(處置)에 곤난(困難)한 활태(活態)에 있다. 이대로 갈진대 마침내 자기(自己)들이 창조(創造)하고 이용(利用)하여온 물질문명주의(物質主義文明)에게 돌리어 노예(奴隸)가 되지 아니하면

14) 이러한 요소는 유대교의 신화에 등장하는 '골렘(Golem)'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진다. 또한 괴테의 『Faust』 2부에는 '호문쿨루스(Homunculus)'라는 작은 인조인간이 등장한다.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제갈량(諸葛亮)의 목우유마(木牛流馬)는 무생물에게 영혼을 부여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상상을 형상화했다.

아니 될지도 모를 것이다. (...) 공장(工場)에서 일하는 노동자(勞動者)는
모다 기계(機械)의 노예(奴隸)이다. 현대(現代)의 산업(產業)은 사람이 하
는 것이 아니라 기계(機械)가 하는 것이다. 공장주인(工場主人)은 노동자
(勞動者)보다도 기계(機械)를 중(重)히 녀긴다. (...)15)

작품의 요약 소개 외에 이광수는 당대 기계사회와 노동자의 구도에 대
한 원인을 인간의 욕망에 두고 있으며, 물질문명주의의 노예로 전락할 인
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독자들에게 해외의 문학작품 소개를 하
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사회가 가져다 줄 당대 사회변화 현상에
대한 전망에 대해 예민하게 주시16)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기진 역시 1925년 두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 7면에 ‘여덟피(여덟
피)’라는 필명으로 ‘카-렐 차페크의 인조노동자(人造勞動者)-문명(文明)
의 몰락(沒落)과 인류(人類)의 재생(再生)’이라는 평론17)을 기고한다.
그는 극 중 형상화되는 기계문명에 대해 현시대를 넘어 인류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로봇의 붕기가 형상화
되는 서사에 대해서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반역의 정신으로부터 일어난
사회혁명이며, 이러한 체제 자체를 완전히 몰락시키거나 전복시키지 않
으면 인류의 행복을 도모할 수 없다”18)는 인식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의
철패는 현시기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
이다.

김우진의 경우 여러 편의 글들을 통해 당대 기계문명에 대한 해석19)을

15) 이광수, 『인조인:보헤미아 작가의 극_이광수 역술』, 『동명』 제31호(2권 14호), 1923.04, 15~16쪽.

16)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1910년대에 작성한 다수의 글과 『개척자(開拓者)』 등의 작품을 통
해 과학지식을 기반한 적자생존과 물질적 부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동명』에 기고한
『인조인』의 핵심은 유토피아라기보다 디스토피아에 더 인접해 있다. 황종연, 『신 없는
자연 : 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제36집, 상허학회, 2012, 143~182쪽.

17) 여덟피, 『카렐 차페크의 人造勞動者(숙)-文明의 沒落과 人類의 再生』, 『東亞日報』.
1925.02.09. ; 1925.03.09.

18) 여덟피, 위의 글. 7 요약 인용.

다룬다. 이 과정에서 그는 KAPF를 위시한 당대 조선의 계급문학론²⁰)과 다른 맥락의 계급투쟁을 주장한다.

(...) 생활상의 원시적 대립은 오늘날 모든 과학의 덕택으로 어느 정도까지 무관심하게 되어 왔으나 그 대신에 그 과학이 주는 옴갓 해독(害毒)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대립을 주게 되었다. 즉 근대 산업문명이 주는 계급적 대립이다. 사람이 원시적으로 사리갈 때에도 대립과 싸워 왔거늘 하물며 오늘의 계급적 대립이라. (...) 오늘 우리는 계급 대립에서 싸워야 하겠다. (...) ²¹) 기계! 이 기계는 현대자본주의의 보이란다. (...) 그리하여 이십세기 괴물인 기계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는 상대의 지위에서 서지 안할 수 받게업게 되었다. (...) 설령 기계의 오용으로 노동자가 기계의 노예가 되기는 했스나 만일 그 오용자인 자본가만 들어 치워 봐라. 그째 가서는 기계는 인류에게 큰 행복과 이익을 주게 되지 않는가. (...) 공장의 기계도 잇서야 하겠지만 제일 노동자가 기계가 되어야 한다. (...) 로봇이 공업적 견지로써 극히 안전하고 요구가 적고 임금을 빚지도 안코 비-루도 안 먹고 감정도 고통도 영혼도 업는 기계적 생물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의 노동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 ²²)

이상의 글은 김우진이 구획한 계급투쟁의 대상이 물질문명을 앞세워 조선을 지배하던 제국주의 열강을 향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

19) 즈뎡가 끌리슬로바, 『김우진과 까텔 차백』, 『민족문학사연구』 제4권,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154~165쪽.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15~206쪽.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의 동경유학기 체험과 문학사상』, 『김우진』, 연극과인간, 2010, 12~48쪽.

20) 그는 당시 KAPF의 계급문학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과 함께, “그들은 아주 계급이란 그것부터 명확, 절실하게 의식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매섭게 비판한다. 서연호·홍창수 편, 『아관 '계급문학'과 비평가』,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280쪽.

21) 서연호·홍창수 편, 위의 글, 284쪽.

22) 서연호·홍창수 편, 『歐米 現代劇作家(紹介)』,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151~153쪽.

다 그는 인류가 존재해온 이상 노동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는 늘 지속되어 왔으니 별개의 문제로 두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타의 당대 기계문명에 관한 글을 쓴 이들과 다르게 “노동자가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동일시의 시각을 견지한다. 특히 그는 평론에서 “프리무스(伊達信_이달신)와 헬에나(山本安英_산본안영), 두 로봇트는 서로 웃고 북그려워 하고 뒤쫓고 입맛췌고 한다.”²³⁾라는 행위를 서술을 통해 로봇을 새로운 아담과 이브로 인식한다. 더불어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부인(否認), 모성(母性)의 고창(高唱), 노동의 신성(神聖)”²⁴⁾ 추구를 통해 당대 기계문명의 진보와 이윤 추구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몇 년 이내이기는 하지만 이상 세 명의 작가들은 먼저 글을 쓴 이들의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 도래할 기계문명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이광수는 정신무장을 통해 기계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다소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김기진은 프로작가답게 사회주의로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며, 김우진은 KAPF와는 다른 차원의 계급투쟁의 시대가 올 것이라 짐작하며 인간과 기계의 역할에 관한 동일시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동시대의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실린 심훈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1927)²⁵⁾ 감상문에서도 발견된다.

23) 서연호·홍창수 편, 『築地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204쪽.

24) 서연호·홍창수 편, 위의 글, 201쪽.

25) 『Metropolis』는 SF영화의 시초 중 하나이자 디스토피아의 원형 중 하나로도 꼽힌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영상물이며,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공각기동대,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많은 영화가 메트로폴리스의 영향을 받았다. 김승구,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책과함께, 2012, 171~178쪽. 한편으로 기자 출신의 심훈이 영화를 읽어낼 수 있었던 감각은 『장한몽(長恨夢)』의 후광 아래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 일활 촬영소에서 무라타미노루(村田實)감독의 사사(師事)를 받으며 수 개월간 연출기법을 배우고 또 이곳에서 제작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 덕분이라 짐작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이상화한 거대한 기계의 활동은 사람의 두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미치게 한 공상으로 빚어낸 과학의 영화라 하겠다. 이 영화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도시 가운데에서 생사여탈의권을 가진 재벌 바스타-만(프레더만)의 아들과 무산자의 딸이 연애하는 것은 역시 현대 인도주의자의 로맨틱한 추상으로 밖에는 아니 생각되나 이러한 곳에 현대에서 역시 극적 갈등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인간을 제조하는 것과 같은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일의 라디오를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반드시 공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26)

공상의 서사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공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심훈의 입장은 앞서 이광수와 그 뒤를 이어 글을 발표한 작가들과 그 궤(軌)를 같이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주체로 인지하며, 실제 생명력이 없는 현재의 기계를 무의식중에 생명이 깃든 기계이자 점점 몸집이 커져가는 괴물로 인지한다. 환언(換言)하자면 이상의 글들은 (공상)과학이라는 소재의 극 서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계문명에 대한 합리적인 내러티브로 제시한다. 하지만 기계인간 또는 인조인이라는 낯설기만 한 기계발달의 소식들과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는 이들의 수사학적 글쓰기라는 방식을 통해 테크놀로지의 부정성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들이 접한 번안희곡의 원작품과 영화 등이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안정화 시기(1924~1929) 가운데 기계적 환상을 다루는 시기이자 기계 숭배가 지배적인 대중적 현상이었던 시기”27)에 제작된 것임을 고려해볼 때, 수용을 주도한 (유학생 또는 제국인텔리) 위치에서는 당시 물질제일주의를 표방한 아메리카니즘28)과 더불어

26) R生, 『우파 사 作(우파 스튜디오 작품)_메트로폴리스』, 『東亞日報』, 1929.05.02.

27) 당시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던 전후 독일은 미국의 산업합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민경제의 갱생에 전력을 다했다. 생산비 절감에 따른 상품 경쟁력의 확보는 패전에 따른 식민지 상실과 국내의 시장에서 불리한 입지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괴중호, 『기계로서의 도시』, 『독일어문학』 제77권, 한국독일어문학회, 2017, 229~248쪽.

어 식민지 조선의 20년대부터 30년대를 바이마르공화국시기에 버금가는 최선의 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생산이 향상되게 되고 그에 따라 대공업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국가들은 그 국가 자체에만 대한 국가가 아니고 세계에 대한 국가이다. 금일 조선인은 조선의 조선인만 아니고 세계의 조선인이 되는 것이다.(...)29)

당시 주요 신문과 잡지 매체 내(內) 조선의 장래와 관련한 글들은 대부분 “조선도 세계 연쇄의 일환(一環)인 입장”³⁰⁾에서 사회변혁이 이뤄져야 함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테일러주의(Taylorism) 등 기계화된 대량생산 시스템과 자본주의 중심의 아메리카니즘, 신예의 사회주의 불세비즘이라는 균열된 세계로 포착된다. 조선의 지식인·운동가들은 도래할 기계사회라는 새로운 근대질서와 이데올로기에 식민지 현실의 고뇌와 전망을 투영시켜 나가며 아메리카와 소비에트 내 필요한 시스템들을 선별해 들여오려 하였고, 그 속에는 일제를 타도하고 전취(戰取)해야 할 신 국가의 다분히 정치 공학적인 청사진이 담겨있었다. 그 과정에서 때마침 일어난 조선의 산업합리화운동은 “식민지의 자본주의화”³¹⁾라는 필연적인 현상을 전제하면서 모든 측면의 능률화를 의미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운동과 사회전면에 등장한 기계는 삶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마법의 수단이면서도,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적잖은 과정을 통해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의 모습으로 점차 변모”³²⁾해 갔다.

28) 한치관, 『과학(科學)으로 엮은 금일(今日)의 인생관(人生觀)』, 한치관(韓稚關), 『우라기(The Rocky)』 제1집, 1925.09. YY, 『조선에서 활동하는 해외에서 도라온 인물 평판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가르쳐 보냈는가?』, 『별건곤』 3, 1927.1, 20쪽.

29) 한승인, 『現代美國의 경제적 지위』, 『朝鮮日報』, 1929.01.01.

30) 서상일, 『朝鮮의 정치적 장래를 비판호, 낙관호, 문화적 경제적』, 『三千里』, 4-9호, 1932.09, 41쪽.

31) 북악산학인, 『식민지적 朝鮮의 재정론』, 『三千里』 13호, 1931.03, 32쪽.

32) 괴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담론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괴물은 출처 없이

또 다른 한편으로 심훈이 언급한 “재벌 바스타-만(프레더만)의 아들과 무산자의 딸”의 연애구도는 다분히 형식적인 극적 효과이면서도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자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 단단히 얽힌 매듭이 서서히 풀려간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후술하겠지만 『인조노동자』에 등장하는 로봇 뿌림쓰와 인간으로 죽었다가 인조인간으로 살아난 헤레나의 혼인 구도나 『노동자』의 노조 대변인 임창한에게 자신을 자본가의 딸이라 속인 기생 월영(향)이 과거 팔려온 삶을 고백하며 각성(覺醒)하는 대목 역시 유사한 설정과 갈등 해소의 구도이다. 이에 대해 앞선 연구자들은 여성의 각성과 사회주의화, 혹은 갈등 해소의 해결점은 인류애(혹은 인간다움, 휴머니즘 등)라는 방식으로 해석해왔지만, 본고는 산업합리화운동 시기 등장한 기계화된 노동자 ‘새로운 아담’에 이어 ‘새로운 이브’, 즉 식민지 산업노동 시장에 나타난 여성(젠더)이라는 존재에 주목한다. 더불어 김남천의 『조정안』에 등장하는 기생 노은홍과 여직공, 그리고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에서 가난을 못 이겨 남편과 동반 자살하는 아내에 이르기까지 이들 여성 인물들은 단순히 극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축발이나 문제해결의 인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의 특정 매개로 표상되고 또 소환된다. 이러한 인물의 구도와 배치는 남성(젠더)과 과학(기계)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고, 기계사회가 여성을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 혹은 병적인 남성(젠더)과 결부시켜 모성적인 것과 관능적인 것 등으로 코드화 하고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재(再)타자화 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갑작스레 출현하지 않는다. 인간사회에 구축한 문화적 해석, 사회제도가 괴물을 만든다. 권김현영 외, 『괴물을 발명하라』, 『성의 정치·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58쪽.

3. 유물론적 사고의 추동(推動)과 은폐된 성차서열의 내면화

3.1. 국민관리제도와 남근적(男根的)권력으로서의 과학

문학과 과학이 관련을 맺는 주요 방식이 당대 과학이 선취한 객관적 결과들을 문학에 대입하는 것이라는 짐작은 문학작품 내 과학의 묘사와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뿐만 문학 속에 나타난 과학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외부존재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질적 태도와 저항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작품 내 들어온 과학에 대해서도 여전히 융합되지 않는 이질적 틈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과학이 선취하여 문학이라는 장르에 알려준 결과가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영희의 『인조노동자』(1925)에는 기계가 이른바 ‘통치의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차원의 권력을 쟁취한 형태로 형상화된다. 전근대 ‘가부장적 계급관계의 해체’와 근대 산업합리화운동에 기반한 ‘기계사회로의 도래’라는 권력 표상의 교체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룰 극중 묘사화 된 인물(혹은 기계나 신)의 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라듀우스는 로대(露臺)란간에 기대올 나서 점잔은 어조(語調)로 부르지진다.)

라듀우스 : 세계(世界)의 인조노동자제군(人造勞働者諸君)! (….) 우리는 이 공장(工場)을 점령(占領)해서 만물(萬物)의 지배자(支配者)가 되었다. 인류(人類)의 시대(時代)는 지내갔다. 새로운 세계(世界)가 일어났다. 인제는 인조노동자(人造勞働者)가 통치(統治)하게 되었다. (….) 세계(世界)는 강자(强者)의 것이다. 살아남은 자(者)가 통치(統治)하는 것이다. 인조노동자(人造勞働者)는 지배권(支配權)을 어땀다. 인조노동자(人造勞働者)는 생명(生命)의 소유권(所有權)을

어덧다. 우리는 생명(生命)의 지배자(支配者)다. (...) 대양(大洋)과 대륙(大陸)이 통치(統治)다. 별의 통치(統治)다. 우주(宇宙)의 통치(統治)다.³³⁾

기계가 “인류(人類)”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내용에는 기계문명이 인류의 생존 여탈권에 긴밀히 닿아있다는 의미가 내제되어 있다. 특히 상기 인조노동자(기계) 라뒤우스의 대사³⁴⁾는 그 이면에 강한 전체주의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산업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 영토전쟁에 이어 경제전쟁으로의 새로운 확장의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조노동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통치의 테크놀로지’라는 도식은 기계사회가 현재의 불평등해 보이는 생활을 계급의 구획 없이 합리화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인 국민 동원 및 통제체제의 한 방편으로 기능할 것임을 전망한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는 더 이상 인간의 하위 노동자가 아닌 인간 이상의 상위 권력자로 스스로를 재정립한다.

이는 ‘기계’가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은유되는 근대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명찰(名札)을 은폐하고 오롯이 보편적인 주체로 신생활 수 있는 계기와 매개로 간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김태수의 「노동자」(1927)에 등장하는 박○○의 대사는 주목할 만하다.

석일련(石一連) : (웃으며) 바람을 이룬 것은 붓대나 가마귀가 아니라 기계 랍니다. 한 공장에서 몇 백 명, 몇 천 명씩을 일시키는 기계! 생산수단! 생산기관! (...) 그 힘은 커다란 기계를 돌려서 쉴새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낼 때 그들은 인간으로서 눈이 뜨게 된 것이라고 하

33) 박영희, 「人造勞働者(前承)」, 『開闢』 제58호, 1925.04. 문예면 73쪽.

34)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전(全)노동자의 기계화, “대양과 대륙의 통치” 등의 대사 역시 기계적 사고로 모든 것을 해결 가능하다고 맹신하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기계숭배현상”과도 매우 유사하다.

겠지요.

박○○(朴○○) : 노동자— 기계! 빨건 노동자, 검은 기계……. (….) 죄는 기계에게 없어! (기운을 내며)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틀린 일이란. (….)그것은 인류의 그림자가 이 지구 위에서 사라질 때까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야.³⁵⁾

문사 석일련(石一連)의 설명을 들은 공장주 박○○의 기계를 언급하는 대사는 사뭇 상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경향극”³⁶⁾이지만,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공장주의 입장에서 “죄는 기계에게 없어!”라 외치는 대목은 앞서 ‘통치의 테크놀로지’와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인이 ‘새로운 지배(권력의) 개인’으로 전환³⁷⁾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는 노동임금을 절감함과 동시에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근대 식민지 개인’이라는 자신의 거주장스러운 관형사(冠形詞)를 제거하고 ‘자본가’나 ‘사업가’라는 보편적 명사로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기에 박○○의 관심은 자연스레 노동자들의 파업과 요구조건 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계사회로의 도래는 곧 ‘제조업 강국(제국)’과 ‘원료공급국’ 그리고 ‘소비지(식민지)’의 이해관계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근대 식민지 조선이라는 로컬 내에 위의 구조를 대입한다하더라도 공장주 박○○은 일방적인 제국의 소비지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배(권력의)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뒤이어 살펴볼 김기림의 희곡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1931)에는 우

35) 서연호, 「김태수_勞動者」, 『한국희곡전집Ⅱ』, 태학사, 1996, 129쪽.

36) 서연호, 「작품해설」, 『한국희곡전집Ⅱ』, 태학사, 1996, 397쪽.

37) 물론 이 전환은 공장주가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전환 감정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 시기 조선에 등장한 기술과 기계를 선점한 집단은 당대 대중문학이 이상화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학리(學理)추구로서의 주체자라기보다 제국의 공업체제를 지탱하는 하부 기술자 혹은 자본가 집단일 뿐이었다. 이들 집단은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통일된 표상을 벗고, 스스로를 노동자, 기술자, 사업가, 관료 집단 등으로 재구획 및 계급화하였다. 김철 외, 「단절과 연속」,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I』, 책세상, 2006, 448~512쪽.

선 기계에 대해 무지(無知)한 근대 식민지 개인(직공)이 등장한다. 그는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업합리화의 단행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

남 편 : 이런 신문 일 없소 (...) 과학이구 문명이구 다 거짓말이지. 그래두 행어나 어디서 먼저 밥 안 먹구 사는 법을 발명하는 자식이 있나 해서 신문만 보았더니 “페린”비행선이 어쩡단 말이야—. “로키트”가 무어야. 소용없어. 가져가요. 일 없어.³⁸⁾

목 없는 사나이 : (...) 물가는 끝없이 내려가나 돈은 귀하기 짝이 없이 되자 우리 회사 주인은 소위 산업합리화를 단행한다고 하고 우리들 직공 삼십 명을 한꺼번에 목을 뺏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값이 싼 우중에 팔리지 아니하니 일꾼을 줄인다는 계랍니다.³⁹⁾

위의 글은 일반 하위 계층이 당대 기계문명을 인지하는 방식이다. 산업 노동자로조차도 편승하지 못하고 실직한 개인에게 남은 삶은 “남편”에서 “목 없는 사나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빈곤과 자살(죽음)이다. 결국 아내와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한 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어디든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지기에게 애원하지만,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위낙 자살자가 많아 자리가 없어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라는 처분을 받고 저승에서 마저 쫓겨나게 된다. 이는 이 시기 역시 새로운 기계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 인력을 대량 감축한 흐름과, 기계사회로조차 편승하지 못해 (식민지 내에서 자본을 선점하고 기술적 주체로 먼저 거듭난 조선인들에게) 재식민지화 되는 실직한 개인이 어느 정도 규모⁴⁰⁾였는지 짐작

38) 서연호, 『김기림_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한국회복전집Ⅱ』, 태학사, 1996, 284쪽.

39) 서연호, 『김기림_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위의 책, 287쪽.

40) 1924년 05월 22일자 신문은 사설 지면을 통해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80%가 일정한 직업이 없을 것이라 추정했다. 『직업난(職業難)에 대하여』, 『東亞日報』 1924.05.22. 참조. ; 근대 사회에서 실업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취업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식되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였다. 강만길, 『日帝時代の 失業者問題』, 『아세아연구』 제77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1~62쪽. ; 근대 식민지 시기는 사회적으로 실업 문제가 최초로 야기된 시기였고,

하게 한다.

한편으로 기계라는 매계 표상은 신성(神性)영역의 재편을 초래했다.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1931)에서는 극 중 기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로 신(하느님)이라는 신성시되는 존재까지 등장하게 한다.

하느님 : 다른 하느님? 하느님이 나밖에 누가 있단 말이나?

이사야 : 있어요.

하느님 : 그럼 사탄인가?

이사야 :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기계(機械)입니다.

하느님 : 기계? 처음 듣는 소리다.

이사야 : 그는 검은 주둥아리와 팔다리와 강철의 의지를 가진 괴물이랍니다.

(…) 이윽고 기계는 우리들의 천국까지 자기의 공장에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 기계와 싸우는 것은 하느님에게 불리합니다.⁴¹⁾

김기림은 기계라는 대상에 대해 추상적으로 “검은 주둥아리와 팔다리와 강철의 의지를 가진 괴물” 이미지의 형상을 우선 배치한다. 그리고 그 (무지하기에 더욱 두려움으로 인지되는) 기계로 인해 해고된 “남편”에 이어 “하느님”이라는 서양 신을 등장시켜 신으로 하여금 거취와 존립(存立)을 고민하게 한다. 물론 우스꽝스럽게 형상화⁴²⁾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

그 시대 작가들은 실업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 최초의 세대였다. 실업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들에서는 실업의 실태, 원인, 해법이 진지하게 모색되었고, 실업으로 야기된 굴욕적인 삶이 실존적 고뇌가 치열하게 성찰되었다. 이 시기 대규모 실직 사태는 단지 취업하기 어렵다거나 취업률이 낮다거나 하는 현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매개로 ‘사상(이상)’과 ‘생활(현실)’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이기도 하였다. 전봉관, 『일제강점기 지식인 실업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387~424쪽. 작금의 실업자들이 느낀 절망과 분노는 당장 직면하게 된 생활과 때문이기도 했지만, 구직과정에서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오며 옳다고 믿어왔던 지식이나 사상, 이념 등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순간 이들은 흠고 배고픔, 구차, 굴욕, 비굴, 굴종 등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41) 서연호, 『김기림_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앞의 책, 292쪽.

의 등장과 배치는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조노동자』의 라듀우스가 보여준 통치의 테크놀로지와 『노동자』에서 새로운 지배 권력의 위치를 꿈꾸는 공장주, 그리고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의 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기계에 대한 묘사는 이들이 향하고자 하는 위치가 통제와 지배, 권력 등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지향(혹은 사수)임을 나타낸다. 극중 신보다 강한 기계로 묘사되는 장면은 곧 대사의 초점이 '기계의 우월함'이 아닌 '신과 기계의 대등함'에 맞춰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신격화된 대상과 대등하게 대립 되는 기계의 형상화는 곧 기계의 신격화라는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지게끔 의도한 배치로 보인다.

극은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에게 최고 권력자이자 통제자라는 이미지를 덧칠한다. 그는 천국이라는 가장 높은 위치를 계속 점유하려하고, 신의 권위에 대항(對抗)하려는 대상과의 대립에서 지지 않으려 고뇌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사와 함께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는 위치는 푸코가 제시한 팬옵티콘(panopticon)⁴³⁾과 같은 (감시)관찰자의 위치이고, 신은 자신의 감시영역이 침범당할 두려움을 이사와에게 언급하며 이미 신격화된 자신의 권력을 기계라는 “괴물”로부터 사수(死守)하려 한다.

이러한 신의 모습은 라듀우스, 공장주와 함께 새로운 “남근중심적 지배 권력의 모습”⁴⁴⁾에 부합한다. 이는 전근대 가부장주의적 남성성의 또

42) 김동환의 희곡 『바지저고리』(문예시대, 1927.01)에도 신(하느님)은 암살위협에 시달리는 존재로 등장한다. 서연호, 『김동환_바지저고리』, 『한국희곡전집 I』, 태학사, 1996, 338~350쪽 참조.

43) 미셸 푸코, 『관옵티콘 감시체제』, 『감시와 처벌』, 오성근 역, 나남, 2016, 303~304쪽.

44) 이블린 폭스는 개인(남성)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성차별 구조(鑄造)를 통해 과학과 철학으로 둔갑했는가를 역사, 정신분석, 과학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그는 근대과학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컨텍스트(context)로 발전되었고, 또한 그런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다면, 성별에 대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도 협력하여 발전되었고, 또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다고 전제하며 (...) 우리가 객관적인 과학을 '단단하다'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암암리에 성의 은유에 호소하는 것이며, 이 은유에서 '단단하다'는 물론 남성이고, '부드럽다'는 여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블린 폭스 켈러, 『근대과학의 탄생 시기의 정신과 이성』, 『과학과 젠더』, 민경숙·이현주 역, 동문선, 1996, 57~90쪽.

다른 형태이며 이들보다 하위에 위치한 대상은 그 자체로 소유와 성취의 대상이자 굴종시킬 범주의 이름 없는 타자일 뿐이다.

3.2. 여체(女體)의 재현과 근대극장의 상상력

기계사회로의 도래와 변혁의 과정에 기계와 괴물의 표상이 매개로 기능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변화가 건전(健全)이 전제된 것과는 동떨어진 과정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반(反)건전에 해당하는 지점은 극중 여성 등장인물들을 퇴폐, 관능, 무지(無知), 공공재(公共財)등의 이미지와 결부시키며 극대화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여성(젠더)은 남근중심적 무의식⁴⁵⁾이 반영된 기계사회의 “또 다른 층위의 타자”⁴⁶⁾로 범주화되며, “코드화 된 방식으로 소환”⁴⁷⁾된다. 전 지구적 산업합리화 운동과 함께 기계사회로의 진입을 이제 막 시작한 근대 조선은 여러 급진적인 재현의 시도를 개념화하며 여성도 거기에 포함 시켰던 것이다. 박영희의 『인조노동자』(1925)에 등장하는 (인조)헤레나는 인간으로 죽었던 헤레나가 기계로봇으로 재탄생한 이른바 ‘만들어진 여체’이다.

45) 근대과학은 자연에 대해 활기를 없앤, 신성화되지 않는, 보다 기계화된 개념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 자체가 능동적인 변화의 행위자가 되었다. 근대과학의 이데올로기는 적어도 일부 남자들에게 남성적인 자만심과 용맹성을 위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 이들은 동시에 남자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제도화를 지지하였다. 여성적인 모든 것에 반대하여 정의된 근대과학이 일단 성공을 거두자, 자연과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되었다. 전자는 기계와 같은 기질로 환원되었고, 후자는 성별이 없는 미덕으로 환원되어, 엄마(마더)의 본질이 깎겨지고 정복되었으며, 남성의 권력은 확인되었다. 이블린 폭스 켈러, 『변화하는 성별 이데올로기』, 같은 책, 78~79쪽.

46) 이는 우리(제국)와 그들(식민지)을 분리하는 적대적인 인식을 같은 방식으로 여성에게 적용한 형태일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상상의 지리와 그 표상』,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5, 84쪽.

47) 극 중 여성들의 등장과 이동, 행위는 장기관의 말처럼 남성과 자본에 의해 이미 코드화된 것이다. 이들은 분배된 공간만을 움직이도록 코드화 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들뢰즈는 바둑과 장기를 각각 탈 영토화 하는 유목민과 영토화하는 국가장치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곤 한다. 질 들뢰즈 외, 『유목론 또는 전쟁 기계』,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674쪽.

헤레나 : (...) 나는 당신을 만들 새처럼 마음이 조흔 새는 업서요. 썬림쓰 씨! 나도 당신을 어엿부게 만들어 들어야지요.
썬림쓰 : (헤레나의 손잡았다) 헤레나는 새새 심장(心臟)이 급(急)히 썬대가 업섯습니까? 헤레나! 엇대요? 자아, 무엇이 썬 시작되지요?
헤레나 :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썬림쓰 씨! (썬림쓰의 머리에 장미화(薔薇花)를 썬자 주었다. 썬림쓰와 헤레나는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었다)⁴⁸⁾

헤레나의 기계화 이후 동료 로봇 썬림쓰와의 각별한 관계구축 및 친교 행위는 여성의 기계노동자화, 남성구조로의 편입, 근대 사회활동 영역으로의 진출 등 당대 여성에 대한 다채로운 측면의 “각성(覺醒)”⁴⁹⁾과 함께 ‘생산주체로의 편승’이라는 새로운 가치표상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인간으로는 로봇 계급의 해방을 위해 대의를 품고 죽었지만, 기계화 된 여체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헤레나는 기계사회의 일원이 되어 기능하고 있다.

한편으로 김남천의 『조정안』(1932)에는 이미 공장 내에서 생산주체로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노출된다.

김병현(金秉鉉) : (...) 수유시간의 자유는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직공들은 큰 낙심을 두니까.
김도원(金道元) : 에헤— 건 안됩니다. 자유를 주면 어디 젓들만 먹이고 일을 하는가요?
김병현(金秉鉉) : 하하— 거 그럴것군—⁵⁰⁾

48) 박영희, 『人造勞動者』, 『開闢』, 제59호, 1925.05. 문예면 26쪽.

49) 이동희·노상래 편, 『人造人間에 나타난 女性』, 『박영희 전집』 제1권, 영남대출판부, 1997, 124쪽.

50) 서연호, 『김남천 調停案』, 앞의 책, 276쪽.

“생식기술은 여성 몸의 살덩어리 위에 권력 관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⁵¹⁾한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부모, 태아, 그리고 그 결과인 자녀에 대해 구축된 권리와 책임을 확립하는 것을 통해서도 제도화된다. 하지만 상기 극 중 남성들은 수유 시간마저 통제해야 할 대상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공은 가족과 유사하리만큼 “공공재로 인지”⁵²⁾되고, 젖을 먹이는 사적 영역조차 공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감시의 대상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저임금을 들여 생산성 증대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몸’이면서도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생물학적 재생산도 통제하려 하는 남성들의 심리 저변에는 가부장적 권력형 성(性)인식이 기저(基底)한다.

뒤이어 김태수의 『노동자』(1927)에 등장하는 월영은 본디 월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다. 그녀는 퇴폐와 관능이라는 표면적 외형을 도구화하여 공장주 대신 임창한을 접대(接待)하고 적당히 구슬려 돌려보내리는 임무를 맡고 있다.

월 영 : 용서하세요 선생님! 저는 월영이가 아녀요. 월향이여요. 공장주의 영양(令嬢)이 아니라 공장주를 웃기는 기생이올시다. (...) 오늘 밤에도 저는 돈 십 원에 팔려서 선생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 저는 이 xx에 순실한 사람이 되렵니다.

임창한(林昌漢) : 네, 그러면 이 집 주인이 당신을 시켜서 나를 달래는 모양이구려. (...)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을 한 친구로 알겠습

51) 앤 마리 발사모, 『공적 임신과 감시의 문화적 서사』, 『젠더화 된 몸의 기술』, 아르케, 2012. 139쪽.

52)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은 총후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식민지화 산업이 본격화되면 여성은 가사능력, 출산능력, 위안적 역할 등 여성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성계 척민에게 뒤지지 않고 과감하게 일할 것이 요구된다. (...) 결국 그녀들은 국가로부터 젠더역할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당한다. 오고시아이코, 『콜로니얼리즘과 젠더』, 『근대 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 전성곤 역, 소명출판, 2009, 212쪽.

니다.⁵³⁾

피아노를 전공한 공장주의 영양(令嬢) 월영에서 “돈 십 원에” 팔려온 월향임을 실토하는 장면은 그녀가 ‘성적인 대상’에서 ‘생산주체’의 동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실토가 내적 결단에 의한 행동이 아닌 임창한(林昌漢)이라는 “남성(젠더)에 의한”⁵⁴⁾ 실행임을 주목해야 한다.

남성에 의한 외부적 자극은 두 가지 층위에서 남성으로하여금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하나는 남성의 측면에서 남성(자신)으로 인해 여성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각성하게 한다는 것 자체로 모든 측면에서 자신이 여성타자보다 우월 주체라는 오인(誤認)을 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때때로 인간 자체의 상·하위 구획을 넘어 여성은 남성보다 무지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은 계몽의 대상이며, 남성주체보다 덜 깨우친 미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미완의 주체는 남성의 도움에 의해서만 하나의 주체로 오롯이 설 수 있다는 오류이다.

다른 하나 역시 유사한 층위이지만 여성의 측면에서 기생이라는 직업군의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보자면, 기생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의 눈물이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속 이야기가 왜 하나같이 일관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시기 『三千里』 잡지에 등장하는 『美人薄命哀史』류의 여성담론이나 기생, 여급의 기사는 하나같이 만들어지거나 짜여진 듯 눈물과 어렵사리 털어놓은 속내 사연들로 일관된다. 객체(客體)로 하여금 우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객체를 통해 감화(感化)되었다거나 객체를 만나 내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서사는 상기 김태수의 『노동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창한”이어서가 아니라 객체인 남성 손님에게 그

53) 서연호, 『김태수_勞動者』, 같은 책, 137쪽.

54) 여성은 평사이거나 여배우이거나 남성 지도자에 의해 강고하게 구축된 근대국민국의 젠더인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상우, 『식민지 여배우와 스펀들』, 『극장, 정치를 꿈꾸다』, 테오리아, 2018, 128쪽.

기생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⁵⁵⁾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김남천의 『조정안』(1932)에서 김도원에 의해 호명되는 기생 노은홍 역시 성애화 된 여체로만 기능함을 나타낸다.

김도원(金道元) : (부인을 향하여) 그러면 기생은 노은홍 또 하나루야 어울려야지……. (이 편을 향하여) 또 하나는 장연화? 그래도 그녀는 무슨 임질과 매독이 있다니 하! 하! 같은 값에야 그럼 저…… (부인을 향하여) 이수복이. (…) 하! 하! 이곳에서 살면서 젊은 청년이 살자 죽자 하는 기생의 내막쯤이야 알아두어야지요.⁵⁶⁾

“노은홍”이라는 여성을 성애화(sexualization) 된 여체로 만드는 것은 사회 주체인 남성 “김도원”의 역할이며, 기생은 이들 남성의 성적환상과 시대적 요청을 함축한 구상물이었다. 이는 앞서 『인조노동자』를 관람한 김우진이 “(…)두 로봇트는 서로 웃고 북그려워 하고 뒤쫓고 입맛썰고 한다.”⁵⁷⁾는 언급에서도 재확인 된다. 기계인간으로 재탄생한 헤레나는 생산 동지이면서도 “여성신체”로 만들어졌기에 남성 기계와 입을 맞추는 성적인 기능을 소지(所持)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화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기생은 곧 반(反)건전의 범주 내(內)에서 상품화된 육체를 지닌 여성이었으며, 이러한 여체가 남성의 요구에 맞게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곧 근대 여성젠더를 선별하고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신념 속에서 여체는 적극적으로 시각화되고 대상화되며 성애화 된 대상으로 더더욱 “변모”⁵⁸⁾

55) 이러한 타자들은 보편성애의 동일화라는 헤게모니투쟁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되거나 은폐하거나 이중의 삶을 살도록 암묵적으로 강제된다. 권김현영 외, 『성적 차이는 대표 될 수 있는가』, 『성의 정치·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43쪽.

56) 서연호, 『김남천 調停案』, 『한국회곡전집Ⅱ』, 태학사, 1996, 274쪽.

57) 서연호·홍창수 편, 『축지(築地)소극장(小劇場)에서 인조인간(人造人間)을 보고』,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204쪽.

58) 이 시기 여성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변모하게 되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피임의 확산보다 낙태가 증가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피임 수단과 달리 낙태는 남성의 동의나 협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 육체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주체로의 편승이나 성적대상으로조차 인지되지 못한 부류의 여성이 있었다. 김기림의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1931)에 등장하는 “아내”는 기계사회로부터 이탈한 남편으로 인해 근대 영역으로의 직·간접적 진출에서 배제당한 인물이다.

남 편 : 여보게 우리 죽지 않으려나. 죽은 뒤에야 누가 아나. 빗쟁이가 오겠으면 오고 어디 밥 근심이 있겠나. 그것 좋으니 시원히 죽어버리세. 뭐 자네나 나나 무슨 미련이 있나.

아 내 : (...) 차라리 얼른 죽여라도 주세요. 날마당 이 꼴일 테니 산들 별 수 있을라구.

남 편 : (...) 우리, 유서를 써서 밖에 붙이고 허리띠로 목을 매고 자빠집시다.⁵⁹⁾

극 중 아내는 그 어떤 교육의 기회나 사회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구 여성으로 형상화되며, 남편이 실직하여 남편 구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날 곳이나 의지할 능력도 없는 인물이다. 아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주체적인 빈곤 극복의 활동과 수익창출의 행위가 아니라 남편의 제안에 따라 함께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극의 맥락은 기계사회로의 편승만이 곧 생존과 직결 되는가하

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엘리자베트 백 게른스하임, 『모성애의 발명』, 이재원 역, 알마, 2014, 122쪽. 남성의 권한보다 여성 본인의 선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자살 외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여성 개인의 주체화 행위이다. ; 해게모니에 저항적인 민중과 그 지도자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소비체계에 참여하고 기본 요구를 충족한다. 심지어 해게모니적 질서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위주체는 착취에 대해 공격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며 증재적 해결을 추구한다. 김우진, 『<심청 연꽃의 길>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서사 전략의 문제』, 『호원논집』 제22호, 고려대 호원논집, 2015, 105~134쪽. 그리하여 이 변모의 여체는 타의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도 더욱 남성의 요구에 맞게 기능화되어갔을 것이다.

59) 서연호, 『김기림_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한국회국전집II』, 태학사, 1996, 284~286쪽.

는 측면과, 당대 여성의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성에게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⁶⁰⁾을 지니게 한다. 다시 말해 끊임 없이 해체(deconstruction)의 가능성과 탈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중 여성들은 남성의 코드화된 여체의 표상으로 형상화 될 수밖에 없었는지와 함께 극 서사전략에 있어 극을 창작한 이들에게도 여성의 형상화는 코드화 된 여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남근중심적으로 구축된 기계사회 내 여체의 재현과 코드화되어 소환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극중 여성 인물이 재현되는 방식의 구분.

구분	희곡 작품	인물	비고
1. 생산동지	박영희 『인조노동자』(1925) 김남천 『조정안』(1932)	헤레나	
		여직공	
2. 성적대상	박영희 『인조노동자』(1925) 김태수 『노동자』(1927) 김남천 『조정안』(1932)	헤레나	
		기생 월영(향)	
		기생 노은홍	
3. 강제된 구여성	김기림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1931) 김남천 『조정안』(1932)	아내	
		여직공	

여체를 재현한 극 서사 전략의 문제는 동지(1. 생산동지)와 창녀(2. 성적대상), 모성(3. 강제된 구여성)으로 코드화 된 여성을 남성젠더의 필요 조건에 맞게 소환한다는 것이다. 이들 간의 코드는 서로 겹치거나 전환되

60) 들뢰즈는 영토화 및 코드화된 억압적 체계를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토를 가로지르는 노마딕(nomadic)한 탈주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푸코는 성(sexuality)이 구조적으로 억압되어 왔다는 가설 위에 성에 관한 지식과 담론은 오히려 확산되어 왔음을, 그리고 라캉은 구조화된 무의식의 세계를 정신분석학의 주제로 등장시켰지만 동시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알튀세르는 자본의 착취구조를 넘어 이데올로기와 국가라는 중층적 관계를 인식론적 틀로 제시하였다. 박찬부, 『상징질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의 문제:라캉과 알튀세르』, 『영어영문학』 157권 01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1, 63~85쪽.

기도 하지만 [표]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극에서 여성을 남성의 요구조건에 맞게 묘사하는 것은 남근중심적 기계(노동)사회의 흐름을 대변하는 동시에 여성의 신체라는 시각적 욕구충족에 관한 광범위한 미학적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생산 동지이자 기계사회의 일원임에도 이들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되었고, 실제 공장에 투입된 여직공들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자본화하는 기생의 형태로 사회진출이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문학작품 내에서 주체권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존재라기보다 남성에게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동정의 대상으로 형상화”⁶¹⁾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극이라는 창구(窓口)는 대부분 남성의 시각으로 활자화되고, 필치(筆致)로 구현된 여체가 실제 무대 위에서 연기(演技)로 재현되며, 노골적으로 성차화 된 육체의 헤게모니 속에서 기계부품으로나마 편승한 남성 주체의 우월성을 입증시켜주고 남근중심적 이상을 확인시켜주는 대리적 표상물로 형상화 되었다.

4. 보편표상의 교체를 향한 열망의 기호들

근대 산업합리화 운동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혁신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대량생산과 정치의 민주화에 기초한 기계사회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조선의 인텔리들이 포착한 당대는 기술혁명과 기계만능의 시대이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균열의 시대였다. 이 시기 자·타의적 기계사회로의 진입은 문명의 지형에서 고립되고 지체된 식민지 근대조선이라는 장애를 넘어 일거에 보편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강

61) 랑시에르는 “철학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다룸으로써 결국 자신들만의 ‘빈자(貧者)’를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조문영, 『계급적 소비의 거부』,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0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1, 79~119쪽. 즉 지식을 지닌 자들이 가난한 하위주체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자신의 선 이해와 욕구에 바탕을 둔 불완전한 재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력한 힘을 가진 표상으로 기능하였다. 문화 권력층에 해당했던 인텔리들은 기계사회의 도래라는 과학의 특정 시류(時流)를 문학이라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산업합리화운동이 불러온 현상과 정치·사회적 논의들을 코드화하면서 식민지 학술장과 매체의 지면을 통해 헤게모니를 관철시켰다. 그것은 급변하는 식민지에 대한 이해를 과학소재와 표상의 언어를 통해 재맥락화 하는 시도이자 극적 재현이라는 이해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론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으로 형상화된 작품들 내에는 근대 식민지라는 특정한 역사적 장소와 과학이라는 보편적 언술체계 사이의 모순과 이율배반적 균열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과학은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 이전의 서구적 근대라는 보편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편표상으로 기계와 괴물, 그리고 여성을 통해 제시되었다. 근대극장은 병적이고 에로스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이데올로기적 현상을 각자가 정의 내리고 확신하는 진정한 과학의 신념이자 남성젠더적 주체성을 중심으로 주변화하였다. 또한 과학을 통해 왜소한 식민지적 자아를 성형하고 보편적 주체성을 획득하는 시각과 경험의 과정을 기고 및 서사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었으며 작금의 민족과 대중 전체가 과학을 통해 보편주체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시적으로 이 시기 여성과 여공이라는 존재는 더욱 극심하게 소비되어감과 동시에 감시의 대상이 되어 피폐해진다. 사라진 개인의 자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권력 형태의 변화 및 형상화 된 극의 균열과 재현은 자본가와 비자본가나 소비에트식 정치적 이념의 구획을 넘어섬과 동시에 가부장, 혹은 전근대적 남성 권력이라는 위치를 기계사회와 과학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재점유하려던 “남성젠더 무의식의 반영”이자 당대 보편표상(가부장에서 그 다음의 ‘것’으로 남근 권력의 이동)의 교체를 향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과학이라는 혹은 기계사회라는 온전한 개념과 의미에서 멀어져 식민지 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체제에 자발적이고 충량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식민지 남성젠더에게 요구되는 형태로 순응하는 여성젠더를 만들어내는 왜곡과 속류화의 이데올로기로도 기능함과 동시에 분리와 배제, 왜곡과 은폐라는 오용과 남용으로 쓰임되었던 이 시기의 제도와 제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영희, 「인조노동자」, 『개벽』, 제56호-제59호, 1925.02~05. 문예면.
_____, 「人造勞働者(前承)」, 『開闢』 제58호, 1925.04. 문예면 73쪽.
_____, 「人造勞働者」, 『開闢』, 제59호, 1925.05. 문예면 26쪽.
박화성, 「추석전야」, 『조선문단』, 방인근 발행, 1925.01, 185쪽.
북악산학인, 「식민지적 조선(朝鮮)의 재정론」, 『三千里』 13호, 1931.03, 32쪽.
사 설(私說), 「직업난(職業難)에 대하여」, 『東亞日報』 1924.05.22.
서상일, 「조선(朝鮮)의 정치적 장래를 비관호, 낙관호, 문화적 경제적으로」, 『三千里』, 제04-09호, 1932.09, 41쪽.
서연호, 「김태수_勞働者」, 『한국회곡전집Ⅱ』, 태학사, 1996, 126~135쪽.
_____, 「김남천_調停案」, 『한국회곡전집Ⅱ』, 태학사, 1996, 269~278쪽.
_____, 「김기림_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한국회곡전집Ⅱ』, 태학사, 1996, 284쪽.
서 춘, 「산업합리화」, 『별건곤』, 제28호, 1930.04.
이광수, 「인조인:보헤미아 작가의 극_이광수 역술」, 『동명』 제31호(02권 14호), 1923.04, 15~16쪽.
여덜되, 「카렐 차페크의 人造勞働者(숙)-文明의 沒落과 人類의 再生」, 『東亞日報』. 1925.02.09. ; 1925.03.09.
한승인, 「현대미국(現代美國)의 경제적 지위」, 『朝鮮日報』, 1929.01.01.
한치관, 「과학(科學)으로 엮은 금일(今日)의 인생관(人生觀)_한치관(韓稚

關), 『우라끼(The Rocky)』 제1집, 1925.09.

홍양명 外, 『우리들은 아미리가 문명을 끄으러 올가 로시아 문명을 끄으러 올가?』, 『三千里』, 제04~07호, 1932.06.

R生, 『우과 사 作(우과 스튜디오 작품)_메트로폴리스』, 『東亞日報』, 1929.05.02.

YYY, 『조선에서 활동하는 해외에서 도라온 인물평판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가르쳐 보냈는가?』, 『별건곤』 제03호, 1927.01, 20쪽.

2. 단행본

권김현영 外, 『괴물을 발명하라』, 『성의 정치·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58쪽.

권김현영 外, 『성적 차이는 대표 될 수 있는가』, 『성의 정치·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43쪽.

김승구,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책과함께, 2012, 171~178쪽.

김태희 外, 『기술과 인간』, 『연극비평집단 시선 평론집』, Time Catcher, 2017, 42~44쪽.

김 철 外, 『단절과 연속』,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I』, 책세상, 2006, 448~512쪽.

미셸 푸코, 『관음티콘 감시체제』,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16, 303~304쪽.

서연호, 『김동환_바지저고리』, 『한국희곡전집 I』, 태학사, 1996, 338~350쪽
참조.

_____, 『작품해설』, 『한국희곡전집 II』, 태학사, 1996, 397쪽.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연극과인간, 2000, 15~206쪽.

_____, 『歐米 現代劇作家(紹介)』, 『김우진전집 II』, 연극과인간, 2000, 151~153쪽.

_____, 『築地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 『김우진전집 II』, 연극과인간, 2000, 204쪽.

- _____, 『아관 '계급문학'과 비평가』, 『김우진전집Ⅱ』, 연극과인간, 2000, 280쪽.
- 앤 마리 발사모, 『공적 임신과 감시의 문화적 서사』, 『젠더화 된 몸의 기술』, 아르케, 2012. 139쪽.
- 에드워드 사이드, 『상상의 지리와 그 표상』,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5, 84쪽.
- 엘리자베트 벅 케른스하임, 『모성애의 발명』, 이재원 역, 알마, 2014, 122쪽.
- 오고시 아이코, 『콜로니얼리즘과 젠더』, 『근대 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 전성근 역, 소명출판, 2009, 212쪽.
- 이동희·노상래 편, 『人造人間에 나타난 女性』, 『박영희 전집』 제1권, 영남대 출판부, 1997, 124쪽.
- 이상우, 『식민지 여배우와 스캔들』, 『극장, 정치를 꿈꾸다』, 테오리아, 2018, 128쪽.
- 이블린 폭스 켈러, 『근대과학의 탄생 시기의 정신과 이성』, 『과학과 젠더』, 민경숙 역, 동문선, 1996, 57~90쪽.
- 질 들뢰즈 외, 『유목론 또는 전쟁 기계』,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674쪽.
- 칼마르크스,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발전』,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김재기 역, 거름, 1988, 291~292쪽.
- 토머스 S. 쿤, 『패러다임의 우선성』, 『과학혁명의 구조』, 홍성욱 역, 까치글방, 2013, 198~218쪽.
-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의 동경 유학기 체험과 문학사상』, 『김우진』, 연극과인간, 2010, 12~48쪽.

3. 논문

- 강만길, 『日帝時代の 失業者問題』, 『아세아연구』 제77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1~62쪽.
-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

-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97~225쪽.
- 김상모, 『신이상주의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모색』, 『한국언어문학』 제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237~263쪽.
- 김성수, 『카프文學部編 <카프作家七人集>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01권, 민족문학사연구소, 1991, 301~308쪽.
- 김우진, 『<심청 연꽃의 길>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서사 전략의 문제』, 『호원논집』 제22호, 고려대 호원논집, 2015, 105~134쪽.
-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44권, 현대문학연구학회, 2011, 117~146쪽.
- 박찬부, 『상징질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의 문제:라캉과 알튀세르』, 『영어영문학』 제157권 01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1, 63~85쪽.
- 송명진, 『근대 과학소설의 과학개념 연구』, 『어문연구』 제42권 제0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여름, 2014, 185~207쪽.
- 이민영, 『박영희의 번역희곡과 ‘네이션=스테이트’의 기획』, 『어문학』 제107권 107호, 한국어문학회, 2010, 323~350쪽.
- 전봉관, 『일제강점기 지식인 실업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387~424쪽.
- 조영란,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 나타난 심신이론과 18세기 생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3권 02호, 한국과학사학회, 1991, 139~154쪽.
- 조문영, 『계급적 소비의 거부』,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0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1, 79~119쪽.
- 즈뎡가 끌뢰슬로바, 『김우진과 가렐차벡』, 『민족문학사연구』, 제04권,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154~165쪽.
- 천현순, 『인간과 기계』, 『독일문학』 제122권 0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12, 223~247쪽.
- 피종호, 『기계로서의 도시』, 『독일어문학』 제77권, 한국독일어문학회, 2017, 229~248쪽.

-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 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49쪽.
- 황정현, 「1920년대 『R.U.R.』의 수용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513~539쪽.
- 황종연, 「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제36집, 상허학회, 2012, 143~182쪽.

Abstract

The Medium for the Coming "Machine Society" & Social Transformation : Machines, Monsters, & Women.

Kim, U-jin

For the modern intellectuals, the industrial rationalization movement was no different from the ruling that it should be a precursor to the impending machine society and a transition to an irreversible social revolution. Consequently, the scientific plays of this period must be reexamined in the light of the modern Korean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ride on machine society beyond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enlightenment and class struggle against the changed society. While Lee Kwang-su, Kim Gi-jin, and Kim Woo-jin present a rational view of the machine civilization through their criticisms and appreciation, they reveal the anxiety and horror created by the machine society's news stories. Additionally, the dramatic series of epichs are represented by the coming machine civilizations that are in the form of phallic and phallic power, and the female gender is coded to be re-enacted according to the male's demands. It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male unconscious and an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of the pre-modern male in line with the times of change in machine society and science. The science discourse at this time served as a distorted ideology that created women who would fit in with colonial men.

Key words : Mechanical society, Industrial Rationalization Movement, Monsters, Phallic Power, Female Body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